폭염·열대야 속 희비 갈리는 업계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신세계 이마트에는 매일 밤 더위를 피해 늦은 시간까지 쇼핑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원한 대형마트 '북적' 무더운 전통시장 '썰렁'

전자·빙과업체도 '대박' … 건설업체는 힘겨운 여름나기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계는 물론 품목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식료품·가전·유통업체는 여름 상품으로 매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전통시장, 건설현장 등은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전통시장 '울상' 대형마트 '함박웃음'=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양동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다 무더위로 시장을 찾던 손님들마저 대형마트 등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양동시장 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반으로 줄고 매출도 평균 20~30%가량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더위를 피해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달 두자릿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야간 쇼핑객이 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세계 이마트 매출의 30%가 저녁 8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업계 매출 '대박' 건설업체는 '폭염전쟁'=삼성전자의 7월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LG전자도 같은 기간 매출이 30~40%가량 증가했다.

빙그레·롯데제과 등 빙과업체도 지난달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평균 10% 이상 늘었다.

조선·중공업, 건설업체 등 현장 근로가 많은 업종들은 외부 작업을 자제하는 등 다양한 혹서대책을 펼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6일까지 공장문을 닫고 집단휴가를 들어갔으며, 현대 삼호중공업은 점심 메뉴로 한방 갈비탕·장어추어탕 등 고영양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야외 작업현장에 그늘막을 쳐 폭염 대피시설인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야외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얼음팩을 부착한 조끼와 아이스 머플러를 제공하고 있다.

◇국산 과일 인기… 수입 과일 시들=올 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금값'이었던 국산과일이 불볕더위로 매출이 급증했다. 수입과일보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국산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간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수박(42.4%), 자두(43.1%), 참외(12.4%) 등 국산과일 매출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상 저온과 환율 영향으로 국산 과일 대신 인기를 끌었던 수입과일은 대부분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달 자몽(-2.3%), 청포도(-3.5%), 체리(-1.5%) 등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오렌지(2.3%)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산과일이 잘 팔리면서 올 상반기 55대 45까지 낮아졌던 국산과일과 수입 과일의 매출 구성비도 7월 들어 75대 25 수준으로 회복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제조업 업황전망, 대기업 '낙관적' 中企 '비관적'

체감경기 온도차 여전

韓銀, 2426곳 BSI 조사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체감경기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전국 24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종 대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 112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넘겼으나 중소 제조업체들의 BSI는 99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는 대기업의 경우 7월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 곳이 훨씬 더 많았던 반면, 중소기업은 업황을 비관적으로 느낀 곳이 조금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달의 경기 전망에서도 대·중소기업 간에 시각차가 있었다.

대기업의 8월 업황 전망 BSI는 7월 전망치(110)에서 1포인트 하락한 109였지만 중소 제조사의 경우 2포인트 떨어진 99를 기록했다. 자금과 인력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대·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났다.

대기업의 이달 자금사정 전망 BSI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102로 집계된 반면 중소기업은 3포인트 내려간 93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대기업은 대체로 이달의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 반대로 전망하는 곳이 많다는 뜻이다.

이달의 인력사정 전망 BSI도 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 93이었고, 중소기업은 1포인트 내려간 84에 그쳤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세의 영향을 덜 받고 경기 둔화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의 혜택을 대기업에 비해 덜 받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경기 관련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타이어 업계 '신바람'

원자재 상승 불구 전세계 자동차 수요 회복세로 판매 급증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내 타이어 업계도 신바람이 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생산은 물론 내수와 해외 판매도 작년 대비 30% 안팎의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타이어 생산량은 4천699만8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405만3000개)보다 38%나 늘어났다.

이 같은 판매호조에 힘입어 업체별 실적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고 또는 전년 대비 급격히 개선된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타이어는 매출이 822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4%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9.0%, 순이익은 37.8%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도 2분기 매출이 6281억원으로 작년보다 34%나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금호타이어는 출자전환을 감안한 부채비율이 올해 1월 워크아웃 개시 이전 수준인 300%대까지 내려갔다.

넥센타이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률은 낮아졌으나 매출과 판매는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산학융합단지 10곳 조성

지경부, 中企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안에 해당지역 거점대학의 관련 학과를 입주시키는 등 현장밀착형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와 지역 거점별 대학을 연결시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주요 산업단지별 캠퍼스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산학융합단지 특별법을 제정, 오는 2012년까지 5개 광역권별로 2개씩 모두 10개의 산학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산학융합단지는 기업의 생산 시설과 대학의 연구 시설을 동일 공간에 집적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개념으로, 산업기술대가 입지한 시화단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89.26 (-1.34)
▼ 코스닥지수	479.59 (-2.35)
▼ 금리 (국고채 3년)	3.84% (-0.03)
▼ 원·달러 환율	1,168.30원 (-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금호, 박병엽 팬택 부회장 사외이사 영입 왜?

백의종군·사즉생 각오 〈死卽生〉 금호타이어 '구원투수' 기대

박병엽〈사진〉 팬택 부회장이 '금호타이어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기업 회생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다음달 14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사업영역이 전혀 다른 팬택의 박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려는 이유는 뭘까?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속에서 팬택을 부활시킨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다.

팬택은 2007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4년간 임직원이 혼신의 힘으로 밤낮없이 일한 끝에 스마트폰 '베가(Vega)'를 내놓고 국내 시장 2위를 점유했다. 박 부회장의 힘이 컸다는 평가다. 특히 박 부회장은 워크아웃에 돌입하자마자 당시 보유한 주식과 사재를 모두 내놓고 '백의종군'하며 팬택 회생에만 올인해 10분기 연속 흑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같은 박 부회장의 '사즉생 정신'과 '노하우'가 금호타이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고초려'한 것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명예회장도 '백의종군' 자세로 회사를 살려낸 박 부회장의 경험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풋백옵션 리스크로 위기에 빠진 데다 완성차 업계의 불황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이후 박 명예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워크아웃 돌입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해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